

慶州崔氏松禾派譜를 編纂하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祖上을 섬기고 同姓同本의 일가끼리의 모임을 가져 宗親間에 和合과 親睦을 圖謀하는 것을 美德으로 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이 있음은 오랜 歲月을 通하여 先祖님들께서 쌓으신 어지신 德과 빛나는 功績의 所産임을 우리는 다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門中은 멀리 新羅時代의 學問의 泰斗이시고 名將이신 孤雲 諱致遠 始祖의 遺德으로 連綿히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의 繁榮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어른들로부터 우리의 祖上이 何を 향하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왔지만 어떤 어른께서 何を 향하셨는지 詳細히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 世代들은 歷史에는 精通하여 歷史上 偉人들에 對하여는 잘 알면서도, 우리의 家系나 祖上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事蹟들에 대하여는 疎忽하게 생각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 祖上님들을 잇어 왔던 것이 現實입니다. 더욱이 族譜라든가 先祖에 關한 말을 하면 이는 封建的이고 保守的이며, 낡은 생각인 것으로만 認識하여 온 것 또한 事實이지요.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世界 여러 나라에서도 根本을 重히 여기게 되면서

뿌리를 찾는 等 譜學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이루어지고 있음니다. 우리는 이
제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至重한 先祖님들의 열이 담긴 族譜를 百二十餘年만
에 꾸미었음니다. 우리는 此際에 오늘날을 사는 現代人으로서 우리 門中의 由來
와 始祖以下 祖上님들의 遺業을 받들며 倫理觀을 確立하고 우리의 높은 理
想과 矜持속에 友愛하고 和合하여 우리의 앞날을 開拓해 나가는 것이 先
祖에 대한 後孫된 道理임을 銘心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이 譜牒이 子孫代代
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임을 仰望하는 바입니다.

西紀一九八九年二月末日

二十八世孫

仁龍

謹識

慶州崔氏上系世譜

始祖

蘇伐都利

沙梁部人

法興王三年丙申

謚忠宜君

太宗武烈王三年

丙辰追封文烈

王

蘇伐都利 大伐利
小伐利 大平 吳彬

梳允 見上

伐休王時功臣

二世

子大伐利

有神術人皆畏

新羅建功臣

七世

子 厓

配慶君女

三世

子小伐利

林始公

八世

子 犀

味鄒王時沙殮按
古記則贈藩基
臨王時入晉云

四世

子大平

儒理王時每時每

配儒理別女

九世

子 恒

建武丁丑生每干
享壽九十九

五世

子昊彬

被沙王時阿殮享

壽九十八

十世

子 局

癸酉生公之生日
白虹穿月將軍有
呼風喚雨之術
配黑齒孫女
生卒未詳

六世

子梳允 見下

十一世

子 茂 見下

子東之奈 被殺

子 之

再干